

농어촌공, 수질오염·녹조 통합방제훈련

✎ 조석준 | ⓒ 승인 2021.09.05 18:49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저수지에서 충북지역 남부권(청주·보은·옥천·영동)지사 합동으로 수질오염·녹조 방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시사는 지난 3일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소로저수지에서 수질오염(유류) 사고 발생 시 수질오염 확산과 농업용수 공급중단과 같은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북지역 남부권(청주·보은·옥천·영동)지사 합동 수질오염·녹조 통합방제단 가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남부지사 수질관련 담당자 30여명이 투입돼 가상시나리오에 따라 실제상황과 같은 임무부여와 임무숙지 훈련을 실시해 수질오염발생시 초기 대응능력과 방제능력을 강화했다.

하성래 지사장은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관리와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환경정화와 계도활동을 통해 깨끗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조석준 yohan@dynews.co.kr

저작권자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